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353>

JCCT 2021-8-41

주어-동사 일치의 통사적 유인

Syntactic Attraction of Subject-Verb Agreement

장소영*, 김양순**

Soyeong Jang*, Yangsoon Kim**

요약 본 연구는 주어-동사 일치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통사적 분석을 제공한다. 주어-동사의 수일치는 주어와 서술어간의 연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는 핵-핵 일치 또는 계층적 구조에 작용하는 상방향과 하방향 자질침투라는 순수한 통사적 분석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는 선형적 근접성이나 최소간섭이 아닌 일치의 목표와 국소적 유인자인 명사 사이의 계층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자료로 수식어로서의 전치사구 PP 또는 관계절 CP를 포함하는 복합 명사구를 분석하며 이때 복수자질 [+PL]이 강 자질로서 일치오류의 국소 유인자이다. 따라서 일치오류는 화자들이 수식어 전치사구의 복수 명사구 때문에 주절의 단수 주어를 복수로 잘못 분석하거나 복수 주어의 영향으로 수식어 관계절안의 단수 주어가 복수로 잘못 분석되어 관계절 안의 동사가 복수형으로 잘못된 일치 오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주어-동사 일치는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국소 유인자로 오인되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에 조작되어 나타난다.

주요어 : 주어-동사 일치, 통사유인, 국소 유인자, 자질침투, 핵-핵 일치, 강 자질[+PL]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syntactic analysis for the agreement attraction by proposing three types of syntactic subject-verb agreement. Because subject-verb number agreement codifies the link between a predicate and its subject, it must be the purely syntactic processes of the head-to-head agreement or the feature percolation, where relevant agreement features percolate upward or downward through the hierarchical syntactic structure. The agreement errors are not affected by linear proximity or minimal interference, but instead are affected b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n agreement target and a local attractor. The data in this paper includes the complex noun phrases with a modifier PP or a relative clause CP. Here, the [+PL] feature is suggested to be a local attractor for subject-verb agreement errors as a strong feature. Therefore, speakers tend to erroneously produce plural agreement for a singular subject in a main clause due to a plural NP in a modifier PP or plural agreement for a singular subject in a relative clause due to plural main subject.

Key words : Subject-Verb Agreement, Syntactic Attraction, Local Attractor, Feature Percolation, Head-Head Agreement, Strong Feature [+PL]

*준회원, 한밭대학교 대학원생 (제1저자)

**정회원, 한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7월 26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1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6일

Received: July 26, 2021 / Revised: August 1, 2021

Accepted: August 6, 2021

*Corresponding Author: yskim@hanbat.ac.kr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anbat National Univ, Korea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interface)에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는 주어-동사 일치(subject-verb agreement)의 오류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를 일으키는 유인자들의 특성을 통사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주어-동사일치 분석에 일원화된 통사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통사적 일치라고 하는 주어-동사 일치 현상의 오류의 원인을 선형적인 근접성 일치(proximity concord)에 기초한 최소간섭(minimal intervention)이 아니라 상방향과 하방향의 자질침투기제로 재조명하고 주어-동사 일치현상이 계층적인 통사 구조에 기인하는 통사적 간섭(interference)현상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통사적 일치는 개념적으로 관련된 분리된 통사범주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일치기제의 처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일치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interface)에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치기제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빈번한 통사규칙이기 때문이다. 세계 언어들은 개별적인 일치기제를 갖고 있는데 성인 영어화자들은 16개의 단어마다 평균 한 번의 수일치 구문을 만들어낸다는 통계가 있다 [1].

문법적 일치(grammatical agreement)의 주요 통제자(controller)는 문장의 주어인 명사구 핵(head)인 명사 N이고 일치의 주요 목표인 피통제자는 서술 동사구의 핵인 동사 V이며 주요 일치자질은 수(number)자질이다. 선행연구는 수일치가 대명사인 경우는 어휘적으로 수 자질을 갖는 반면, 동사는 통사적으로 수 자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2].

본 연구의 주요 자료로는 전치사구 PP와 관계절(relative clause) CP(complementizer phrase)를 동반하는 복합명사구(complex NP)내의 일치현상을 분석하며 전치사구가 나타나는 *the key to the cabinets* 같은 구문의 일치의 실제 통제자인 단수명사 *the key*가 아닌 수식어구인 PP안의 비핵(non-head) 명사인 복수형 *the keys*가 유인자(attractor)로 나타나는 주어-동사 일치 오류를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 분석인 근접성 일치가 아닌 상방향 자질침투(upward feature percolation)의 관점에서 통사적 일치로 분석한다. 요약하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language processing)

중에 조작되어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어-동사일치 오류는 구어와 문어 둘 다에서 나타난다 [3, 4].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는 단수/복수 대치(asymmetry)현상을 갖는데 *the key to the cabinets*처럼 단수 핵 명사가 복수형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의해 수식될 때만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가 일어나며 *the keys to the cabinet*처럼 복수 핵 명사가 단수형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수식될 경우는 일치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러한 대치 현상은 주어-동사 일치에서 [+PL]자질만이 강(strong)자질로 상방향 자질침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 분석 자료로 관계절 CP를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의 경우는 전치구와는 다른 원인의 통사적 오류현상이 나타난다. 본동사 주어와 관계절안의 주어가 둘 다 단수일 때는 주어-동사 일치에 오류가 나타나지 않지만, [NP 복수명사-[CP [TP 단수명사-복수동사]]]처럼 본동사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복수형의 주어가 관계절 안의 동사와 본동사의 동사 둘 다에 영향을 끼쳐 잘못된 문법성의 오류를 만들어낸다. 즉 복수형 주어가 관계절내의 단수주어를 갖는 동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복수주어 일치 동사를 갖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관계절을 갖는 복합명사구는 전치사구를 갖는 복합명사구와는 다른 대조적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침투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하방향(downward) 자질침투가 일어나고 이때도 복수[+PL]은 강자질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어-동사 일치현상은 주부를 형성하는 주어 명사구의 핵 N과 술부를 형성하는 동사구의 핵 V가 서로 일치하는 전형적인 통사적 일치인 핵-핵 일치(head-head agreement)의 구문으로 양화사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II. 주어-동사일치의 통사적 분석

주어-동사 일치현상은 통사구조에 근거한 대표적인 문법규칙의 하나이며 주어-동사 일치현상의 오류는 구어와 문어 그리고 여러 번의 교정을 거친 저널들에서도 오류현상이 보인다. 연구의 주요 자료로는 전치사구 PP와 관계절 CP를 동반하는 복합명사구내의 일치 현상을 분석한다.

1. 전치사구 동반 복합명사구 ([NP + PP])

먼저 근접성의 오류를 보이는 수식어로 전치사구 PP를 동반하고 있는 복합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자.

- (1) a. The key to the cabinet is here.
- b. The keys to the cabinets are here.
- c. The keys to the cabinet are here.
- d. ?The key to the cabinets are missing. [3]
- e. ?One in ten take drugs. [4]
- f. ?No one except his own supporters agree with him. [4]

주어가 단수 또는 복수 주어일 때 단수/복수 비대칭 (singular-plural asymmetry) 현상을 보이는데, 즉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명사]] + 복수동사] 구문의 오류는 빈번하나, [[NP 복수명사] + [PP [NP 단수명사]] + 단수동사] 구문의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비대칭 현상을 보인다. 위의 문장에서 복수주어인 (1b)와 (1c)는 오류가 없으나 단수주어로 수식어 PP안에 복수 명사구가 나타나는 (1d~1f)의 문장은 문법적 문장으로 잘못 처리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요 선행연구는 주어 명사구에서 일치의 실제 통제자인 단수 명사 핵(head)과 수식어구인 PP안의 삽입된 비핵(non-head) 명사인 유인자(tractor)인 복수형 the cabinets 사이에서 주어-동사 일치를 위한 선택 상 오류가 근접성 일치(proximity concord)에 기초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4, 5]. 즉 전치사구 내의 복수명사구가 주어-동사 일치에서 근거리 위치로 근접성(proximity)에 근거한 최소간섭(minimal interference) 현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통사적 접근이 아닌 선형적인 접근법이다. 이를 수형도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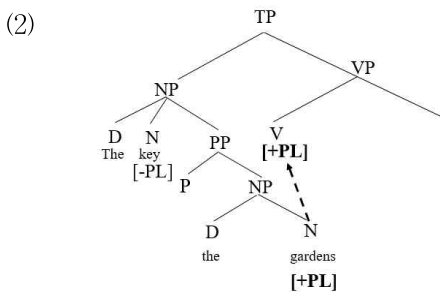


그림 1. 선형적 근접성과 최소간섭
 Figure 1. Linear Proximity and Minimal Interference

수형도(2)를 보면, 유인자인 비핵명사가 일치에 관여하는 본동사에 가까울수록 간섭의 효과가 커진다.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어순을 분석하면, 가까이에 있는 전치사구 내의 복수명사가 주어-동사의 일치에 영향을 주는 선형적 근접성(linear proximity)에 기초한 유인자(tractor)라는 것이다 [4]. 즉, 상대적인 거리의 관점에서 간섭의 효과를 살펴볼 때 이는 계층적인 구조와는 무관한 선형적 어순의 관점에서 보이는 최소간섭효과이다. 최소간섭이란 유인자인 비핵명사가 일치에 관여하는 본동사에 가까울수록 간섭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어순을 분석하면,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명사]] + 복수동사] 어순에서 단수명사에는 단수동사가 나타나야하지만 단수동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복수명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거리의 관점에서 간섭의 효과를 살펴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최소 간섭효과이다. 또 다른 연구는 영어의 주어-동사 일치라는 문법규칙은 전형적인 통사적 계층(hierarchical)구조에 근거한 규칙이지만 주어-동사 일치의 분석(parsing)과 생성(production)시의 오류는 구조적 계층구조가 아닌 선형(linear)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6]. 이러한 생성시의 유인효과(attraction effects)는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다 [7]. 유인효과란 관계절안의 주어-동사 일치를 잘못 유도하는 유인자(tractor)는 동사와 인접한 명사구의 유인에 근거하는데 이는 일치자질의 핵심요소인 인칭(person)과 수(number) 자질이 계층구조가 아닌 단순한 선형구조의 어순(word order)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접성에 기초한다는 선행연구에 대한 반증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간섭의 효과를 통사적 자질침투(feature percolation)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주어-동사 일치 유인은 통사적 구조 안에서 자질이동이 일어나는 자질침투(feature percolation)로 분석하고자 한다 [2], [8], [9].

자질이동이나 침투의 경우, 주어진 통사적 구성소의 자질들은 직접 관할하는 통사절점에서 다음 절점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거나 침투되는데 이러한 단계적 이동 또는 침투는 절점간의 통사적 거리에 방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명사]]]의 구조처럼 전치사구를 동반한 단수주어의 경우 전치사구 안의 전치사의 복수명사구가 동사의 일치

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치사구의 복수 자질이 위로 침투되어 상위구조의 단수주어를 복수주어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아래의 수형도 (3)에서 *the gardens*가 갖고 있는 복수자질[+PL]이 강 자질(strong feature)로 *the key*로 아래에서 위로 상방향 자질침투(upward feature percolation)가 일어나서 주어가 복수로 인식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선으로 표시된 일치가 아닌 직선으로 표시된 일치가 일어나는 이는 선형적 최소간섭이 아니라 자질침투에 의한 통사적 오류 분석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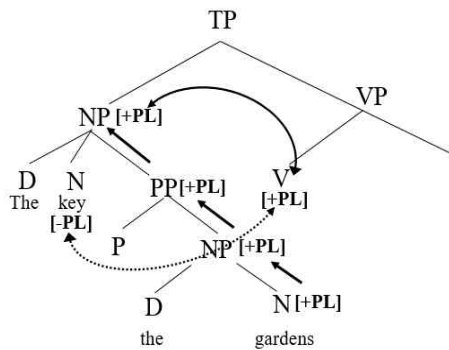


그림 2. 상방향 자질침투현상
Figure 2. Upward Feature Percolation

위의 구조에서 상방향 자질침투를 보면 동사는 전치구내의 명사구인 *gardens*의 복수[+PL]자질이 통사적 주어로 침투되어 *the key*의 자질이 복수자질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근접성에 근거한 최소간섭이 아니라 자질침투현상이 일어난 통사적 구조에 근거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2. 관계절 동반 복합명사구 ([NP + CPI])

이제 전치사구와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의 주어-동사 일치 오류현상을 살펴보자.

- (4) a. The driver who the runner waves to each morning honks back cheerfully.
- b.*The driver who the runner wave to each morning honks back cheerfully.
- (5) a. The drivers who the runner waves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 b. ?The drivers who the runner wave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위의 예문은 미국의 북동지역과 보스톤의 방언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본동사 주어와 관계절안의 주어가 둘 다 단수일 때는 주어-동사 일치가 (4a)와 (4b)처럼 올바른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본동사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5b)처럼 복수형의 주어가 관계절 안의 동사와 본동사의 동사 둘 다에 영향을 끼쳐 잘못된 문법성을 보이는 예문이다 [6]. 관계절을 동반한 복합명사구에서도 전치사구를 동반한 복합명사구처럼 동일한 단수/복수 비대치 현상을 보이는데, 즉 (5b)는 복수형 주어 *the drivers*가 관계절내의 단수주어를 갖는 동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복수 일치 동사를 만드는 오류가 일어난다. 주어명사구의 복수자질은 강 자질로 일치와 무관한 관계절안의 동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절을 포함한 복합명사구의 오류를 통사적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할 것인가. 오류를 일으키는 유인자들은 다수의 명사구들을 포함한 복합명사구들이며 이 경우 주격을 받는 복합명사구안의 일치를 위한 명사는 독립적인 수 자질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2, 8, 9, 10, 1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동사의 수 자질에 영향을 주는 문법적으로 적합한 자질들의 설명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구조표현의 내재적인 특질에 기인한 명사구내의 잘못 침투된 자질 때문이라는 주장과, 둘째, 동시에 활성화된 구성소의 자질들이 동사 형태에서 혼동이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핵심적 차이는 주어 표현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주어 명사구가 구조 형성되는 병합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경우는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에 조작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으로 주어-동사일치의 문법 규칙은 계층적 구조에 기반하며 빈번한 오류는 단순한 선형적 문제가 아닌 계층적으로 상위위치에 있는 본동사 주어가 갖는 복수 [+PL]자질이 강 자질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되는 자질침투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주어-동사 일치 현상은 언어능력에 기초한 통사규칙적으로

선형구조와 무관하게 계층구조에 의존한다.

이제 오류의 핵심이 되는 위의 문장(5b)에 상응하는 수형도(tree diagram)를 살펴보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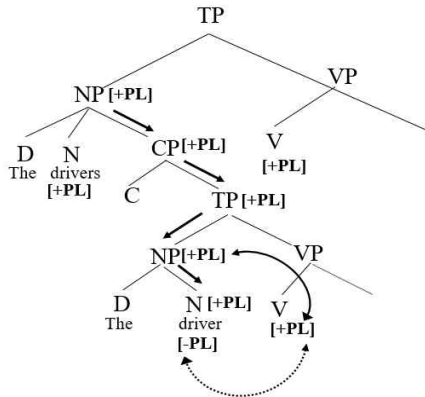


그림 3. 하방향 자질침투현상
 Figure 3. Downward Feature Percolation

생성문법의 자질침투기제에서는 핵에 배당된 모든 문법적인 자질들이 최대투사까지 상방 자질침투가 가능하고 동일한 자질들은 다시 핵의 논항과 부가어로도 하방 자질침투가 일어날 수 있다 [12]. 전통적인 자질침투분석에서는 핵의 자질 침투방향은 아래에서 위로의 상방 자질침투의 방식을 취하므로 [+PL]자질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침투자질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기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유인자가 많은 간접 절점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간섭하는 유인자의 자질들은 핵 명사의 자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는 약(weak) 자질이며 주어와 갖고 있는 [+PL]자질은 강 자질이라고 가정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자질침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6)의 수형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아래에서 위로의 침투기제가 반대로 적용되는 위에서 아래로의 침투기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우 간섭하는 절점들은 비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명사구 주어 *the drivers*가 갖고 있는 복수[+PL] 자질이 관계절내의 단수 주어인 *the driver*에 침투되면 관계절내의 동사는 복수주어의 영향을 받아 언어분석처리 중에 복수형 동사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생긴다.

3. 양화사구문의 Q-자질

지금까지 전치사구를 동반한 복합명사구의 상방향 자질침투와 관계절을 동반한 복합명사구의 하방향 자질침투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질침투와 무관하게 핵-핵 일치(head-head agreement)을 이루는 전형적인 통사일치가 일어나는 구문으로 양화사 구문의 Q-자질을 살펴보고자한다.

영어의 양화사는 어휘가 수 자질을 어휘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서 침투와는 무관하게 어휘 내재적인 수 자질을 갖는데 예를 들면, *some, any, several, many*와 같은 양화사는 [+PL]의 수 자질을 갖고 *each, every*와 같은 양화사는 [-PL]의 수 자질을 어휘적으로 갖고 있어 전치사구내의 명사구의 수 자질과 무관하게 주어 명사구 핵 N과 동사구의 핵 V 사이에 통사적인 주어-동사 일치가 일어난다. 따라서 양화사구문의 경우는 양화대명사가 Q-자질로 [\pm PL]라는 수 자질을 어휘적으로 갖고 있어 전형적 근접성이나 최소간섭을 내재적으로 배제하는 통사적 주어-동사 일치의 전형이다.

이제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양화사 구문의 한 예로 단수 자질을 내재적으로 갖는 *each* 양화사를 살펴보자.

- (7) a. Each of the participants gets started with collaborative teamwork.
- b.*Each of the participants get started with collaborative teamwork.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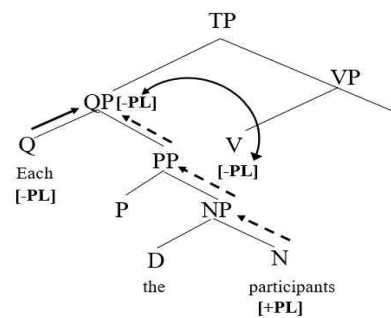


그림 4. 양화사구 주어-동사 일치
 Figure 4. Quantifier Phrase Subject-Verb Agreement

수형도 (8)에서 양화대명사 주어 *each*가 갖고 있는 내재적 단수[-PL] 일치자질이 동사 수일치를 구조적으로 단수형 동사로 결정하는 통사적 일치가 일어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에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는 주어-동사 일치 오류현상을 상방향과 하방향의 자질침투 그리고 핵-핵 일치라는 3 가지 통사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를 일으키는 유인자들의 특성을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주어-동사일치 분석에 일원화된 통합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자료로는 전치사구 PP와 관계절CP를 동반하는 복합명사구내의 일치현상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구문에서 주어명사구 NP나 수식어구인 PP나 CP내의 명사구 NP가 갖는 복수[+PL] 자질이 강 자질이 자질침투의 상하 방향을 결정하며 문장처리 중 오류의 주요 유인자 역할을 하는 2가지 통사분석 유형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통사적 일치인 핵-핵 일치가 일어나는 양화사 구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동사 일치 오류를 주요 선행연구인 근접성에 기초한 최소간섭이 아닌 통사적 분석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주어-동사 일치 오류는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에 조작되어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References

[1] Bock, K. (2011). How Much Correction of Syntactic Errors Are There, Anyway?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5(6), 322 - 335. DOI : 10.1111/j.1749-818X.2011.00283.x

[2] Eberhard, K. M., Cutting, J. C., & Bock, J. K. (2005). Making Syntax of Sense : Number Agreement in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112, 531 - 559

[3] Bock, K., & Miller, C. A. (1991). Broken Agreement. *Cognitive Psychology*, 23, 45 - 93. DOI : 10.1016/0010-0285(91)90003-7

[4]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85.

[5] Francis, W. N. (1986). Proximity Concord in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9(2), 309 - 317. DOI : 10.1177/007542428601900212

[6] Kimball, J., & Aissen, J. (1971). I Think, You Think, He Think. *Linguistic Inquiry*, 2, 241 - 246.

[7] Franck, J., Lassi, G., Frauenfelder, U. H., & Rizzi, L. (2006). Agreement and Movement: A Syntactic Analysis of Attraction. *Cognition*, 101(1), 173 - 216. DOI : 10.1016/j.cognition.2005.10.003

[8] Franck, J., Vigliocco, G., & Nicol, J. (2002). Subject-Verb Agreement Errors in French and English: The Role of Syntactic Hierarchy.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7 (4), 371-404. DOI : 10.1080/01690960

[9] Vigliocco, G., & Nicol, J. (1998). Separating Hierarchicalrelations and Word Order in Language Production: Is Proximity Concord Syntactic or Linear? *Cognition*, 68, B13 - B29. DOI : 10.1016/S0010-0277(98)00041-9

[10] Hartsuiker, R. J., & Barkhuysen, P. N. (2006). Language Production and Working Memory: The Case of Subject-Verb Agreement.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1(1), 181 - 204. DOI : 10.1080/01690960400002117

[11] Solomon, E. S., & Pearlmutter, N. J. (2004). Semantic Integration and Syntactic Planning in Language Production. *Cognitive Psychology*, 49 (1), 1 - 46. DOI : 10.1016/j.cogpsych.2003.10.001

[12]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